

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
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
국내산업 보완대책 추진 계획

2024. 8.

관계부처 합동



차 례



I . 추진 개요	1
II . 영향평가 결과	2
III . 분야별 국내보완대책	3
※ <붙임> 농업 분야 국내보완대책	4

I. 추진 개요

- 필리핀은 인구 약 1억 1천만 명(세계 13위)의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*으로 한-필리핀 FTA 체결로 우리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대

* 필리핀은 13~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1/3을 차지하는 젊고 역동적 시장으로 민간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% 정도임

- 한-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주요 국가와 양자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내 우리 입지 공고화

* 싱가포르('06년 발효), 베트남('15년 발효), 캄보디아('22년 발효), 인도네시아('23년 발효)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다섯 번째 양자 FTA 체결

- 한-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필리핀 시장개방 수준(품목수 기준)을 약 7.3%p* 높여 FTA 미체결 경쟁국보다 시장접근 우위 여건 확보

* 아세안 FTA 및 RCEP 자유화율(89.2%) → 한-필리핀 FTA 자유화율(96.5%)

- 특히, 자동차(관세율 5%), 자동차 부품(3~30%), 친환경차(5%)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

< 추진 경과 >

- ('19.4.17)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양자 FTA 추진 합의
- ('19.6.3) 한-필리핀 FTA 협상 개시 선언
- ('21.10.26) 한-필리핀 FTA 협상 타결 선언
- ('22.7~11월) 한-필리핀 FTA 협상 경제적 영향평가 실시
 - *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용역 수행
- ('23.9.7) 한-필리핀 FTA 정식 서명(한-아세안 정상회담 계기)
 - * (우리측)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(필리핀측) 파스쿠알 통상산업부 장관
- ('23.10.30~11.3)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(서면) 의결(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)
- ('23.11.8~11.13)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심의(서면) 의결(국내보완대책)

II. 영향평가 결과

□ (거시효과) 한-필리핀 FTA 발효에 따라 장기(15년간) ①실질 GDP 0.01% 증가 ②소비자 후생 1.6억불 개선 예상

○ (고용) 발효 이후 15년간 전체 취업자수가 1,540명 증가 예상

○ (세수) 발효 이후 10년간 평균 422.3억원* 세수 감소 예상

* 관세수입은 연평균 610.2억 감소,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는 연평균 187.9억 증가

□ (산업영향) 한-필리핀 FTA로 제조업 중심 수출생산 확대 기대

○ (제조업)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기준, 국내생산이 537억원* 증가, 수출 2,570만불 증가, 수입 170만불 증가** 예상

* 연평균 국내생산액 662억원 증가 예상, 그 중 제조업 증가분은 537억원

** (수출) 자동차 수출 증가로 연평균 1,340만불 수출 증가 예상(조선업 대비 52.1%)
(수입) 섬유 수입 증가로 연평균 110만불 수입 증가 예상(조선업 대비 64.7%, 한-아세안 FTA 등으로 이미 대다수 품목의 관세 철폐되어 수입 증가 미미)

○ (농업)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기준, 국내생산이 95억원* 감소

- 바나나 수입 증가로 과일 분야 생산액은 15년간 연평균 기준 77억원* 감소, 과채 분야는 17억원 감소 예상

* 바나나 관세양허(30%, 5년철폐)로 연평균 사과 25억, 복숭아 16억 등 생산 감소 예상

○ (수산업)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기준, 수산물 수입만 2.4만 달러 증가하고, 생산은 1,022만원* 감소 예상

* 15년간 연평균 연체동물이 522만원(51.1%), 갑각류가 268만원(26.2%) 생산 감소 예상

실질 GDP (15년 누적)	소비자 후생 (15년 누적)	생산효과(15년 연평균)			고용효과 (15년 누적)	세수증감 (10년평균)
		제조업	농업	수산업		
0.01%	1.6억불	537억원	△95억원	△1천만원	1,540명	△422.3억원

Ⅲ. 분야별 국내보완대책

- ◇ **농업분야**는 과수·과채 등 원예산업에 대한 피해 대응을 위해 별도 **보완대책**을 마련하되, **수산업**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**기 추진중인 보완대책을 통해 지원**

[1] 농업분야 : 원예품목(과수·과채) 10년간 투·융자 1,469억원 집중확대

- **(영향검토)** 발효('23년말 예상) 후 이행 **15년간** 국내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95억원(과실 77, 과채 17), **누적 1,426억원 감소**할 것으로 예측
 - 마나나 수입개방(5년 철폐)에 따른 국내 과실·과채 수요 및 생산 대체 영향
 - * 이행 15년간 연평균 13천톤 수입 증가 추정('21년 258천톤(전체 수입량의 73%))
 - **(국내보완대책(안))** 국내 농업생산 피해액을 고려하여 **10년간** ('24~'33년) 기존 대비 **총 1,469억원 투·융자** 규모 순증
 - * 농업분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포럼 구성 및 국내보완대책 마련 추진('23.2월~)
- < 10년간('24~'33) 투·융자 계획(안) >

(단위 : 억원)

사업명	'24년 예산	10년간('24~'33)		
		기존	조정	증감
▶ 과수생산유통지원	587	5,374	6,357	983
▶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	195	2,056	2,159	103
▶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(스마트APC)	372	3,576	3,895	319
▶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	59	593	657	64
총 계	1,213	11,599	13,068	1,469

- **(추진방향)**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·단지화에 집중하고, 생산·유통 스마트화를 위한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투·융자 중점 확대

[2] 수산업분야 : 영향이 미미해 별도 보완대책 미수립

- **(영향검토)**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국내보완대책 미수립

**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
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
농업 분야 국내보완대책**

2023. 10.



농림축산식품부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한-필리핀 FTA 협상 및 영향평가 결과	2
1. 한-필리핀 FTA 협상 결과	2
2. 농축산분야 영향평가 결과	2
III. 한-필리핀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전략	3
IV. 국내보완대책 추진방안	4
1.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	4
2. 농가 경영안정 지원	7
3. 국산 원예농산물 수요기반 확충	7
4. FTA를 활용한 수출기회 확대	8
V. 투·융자 계획	9

I. 추진배경

- 한-필 수교 70년을 맞이하여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**한-필 FTA** 추진 합의('19.6월) 이후 **'21.10월 타결**

※ 한-필 교역규모(억불) : ('05) 55 → ('10) 93 → ('15) 116 → ('20) 102 → ('22) 175

- RCEP 등 기체결 FTA 양허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 개방을 최소화 하였으나, 주요 수입과일인 **바나나** 개방으로 과일·과채 분야 영향 예상
- 한편, 검역협상 가속화, 한류 마케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, 가공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등도 기대
 - 對필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'14년 이후 감소세('14: 4.9 → '22: 3.2억불)

- '04년 한-칠레 FTA 이후 미국·EU·RCEP 등 주요 경제권을 포함한 **21건의 FTA**를 체결하면서 시장개방 영향 누적

- 시장개방으로 농식품 수출도 증가하였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'22년 수출액은 88억불, 수입액은 486억불* 달성

* 수출액/수입액(억불) : ('05) 22/119 → ('10) 41/223 → ('15) 61/302 → ('20) 76/343 → ('22) 88/486

- 내수 위축으로 농식품 소비가 정체*되는 가운데 미국 등으로부터 검역 등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**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

* 국산 과일 소비 비중(%) : ('05) 84.2 → ('15) 76.2 → ('19) 73.7 → ('21) 73.8

** 미국 : 사과(전세계 생산량 3위)·배(2위)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촉구

- RCEP('22.2 발효)의 시장개방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, 추가 영향에 대응해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

※ 그간 9건의 FTA(칠레, 미국, EU,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, 중국, 베트남, RCEP)에 대해 국내보완대책(약 38.4조 원 규모) 수립·추진

 **한-필리핀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 수립 추진**

II. 한-필리핀 FTA 협상 및 영향평가 결과

1

한-필리핀 FTA 협상 결과

- (우리측) 농산물 평균 자유화율 **72.2%**(기체결 평균 73%)로 RCEP 대비 19개 품목*이 추가개방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수준 타결
 - * ▲(관세철폐) 바나나, 밤(냉동), 당류, 과실주스, 당면 등 10개, ▲(철폐일정 가속화) 파인애플 조제, 설탕과자, 위스키류, 커피·곡류조제품 등 9개
 - 쌀 등 주요 민감품목과 신선 파인애플, 망고 등은 양허제외로 보호
 - 바나나는 시장개방(5년 철폐)되었으나, 수입 급증 방지를 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(ASG)* 조치 확보
 - * 수입량이 연도별 기준수량 초과 시 최대 30% 관세 재부과(발효 후 10년간 운영)
- (필리핀측) 농산물 평균 자유화율은 **82.1%**로 RCEP 대비 145개 품목(커피조제품, 인삼조제품 등)이 추가 개방되어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

2

농축산분야 영향평가 결과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
- 발효('24년 예상) 후 이행 **15년간** 국내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**95억원**(과실 77, 과채 17), 누적 **1,426억원** 감소할 것으로 예측
 - ※ 기체결 FTA와 RCEP 양허안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고 한-필리핀 FTA 농산물 추가 개방에 따른 농업 생산 감소액을 추정
 - 해당 생산액 감소 대부분이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증가*에 따른 국내 과실·과채 수요 및 생산 대체 영향
 - * 이행 15년간 연평균 13천톤 수입 증가 추정('21년 258천톤(총 수입량 중 73%) 수입)
 - 과실 생산액 15년 누적 1,156억원, 연평균 77억원 감소 예상, 이는 전체 영향의 81.1%

구분		곡물	과채(채소)	과실	축산	특용·기타	합계
생산액 변화 (억원, 15년간)	평균	△1	△17	△77	0	0	△95
	누적	△11	△255	△1,156	0	0	△1,426

Ⅲ. 국내보완대책 추진전략

목표

**과수산업 생산·유통기반의 거점화·스마트화를 통해
시장개방 위기를 기회로 전환**

전략

'23~'33(10년간) 과수분야 투·융자 1,469억원 순증
* 한-필 FTA 발효 후 이행 15년간 국내 농업생산액 1,426억원 감소에 대해
10년간 투·융자 규모 집중 확대

핵심 전략

추진 과제

[전략 1]

**원예산업
경쟁력 제고**

▶ 생산의 규모화 및 스마트화

- 과원·시설원에 산업단지 규모화 및 에너지 효율화
- 신품종 특화단지 시범조성, 시설스마트팜 지원사업 통합 추진('25)

▶ 유통 효율화 및 수급안정

- 전략품목 중심 스마트 APC 구축(100개소, '27)
- APC 전속출하 생산자단체 육성, 계약재배 확대(118천톤, '24)

[전략 2]

농가 경영안정 지원

▶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합리화

- 대상품목 및 지역 확대, 보험요율 지역·품종 세분화

▶ 수입보장보험 확대

- 농가 수입·매출 검증시스템 구축 및 도상연습('24~'25), 보험 확대

[전략 3]

**국산 원예농산물
수요기반 확충**

▶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화 추진

- 시범사업 지속 추진(~'24), 예타 후 본사업화 추진 검토('25)

▶ 푸드테크 연계 수요 다변화

- 민간기업 협력 푸드테크 연구 및 스마트APC 기반 원료 공급체계 구축

[전략 4]

**FTA를 활용한
수출기회 확대**

▶ 對필리핀 검역장벽 극복

- 국산 포도 수출 검역협상 가속화(現 3단계, 향후 5단계 완료 목표)

▶ 수출 유망품목 경쟁력 제고 및 물류 효율화

- 안테나숍 등 활용 마켓테스트, 해외공동물류센터·콜드체인 구축

IV. 국내보완대책 추진방안

1

원예산업 경쟁력 제고

① 생산의 규모화 및 스마트화

▶ 과원 · 시설원에 기반정비 및 스마트화 투자 확대(10년간 1,150억원)

- **(과원정비)** 생산비 절감, 생산 효율화를 통한 국산 과수의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과실생산 규모화·단지화에 집중 지원
 - 노지 농기계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 및 관배수, 농로 등을 갖춘 규모화된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확대
 - ※ (~'22년) 조성면적 총 10,825ha(전체 재배면적의 약 7%) → ('23p) +615ha
 - 과실전문생산단지 지정 대상 면적기준 완화(30 → 20ha)로 노후 과원 정비 가속화 및 인프라 구축 촉진(관련 규정 개정, '24년)
- **(시설원에 스마트화)** 농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생산 효율화 등 시설원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원예단지* 투자 확대(10개 단지 조성, ~'25)
 - *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이 가능한 관수관비·환경관리시설을 갖추고 연중 안정적 생산체계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이 적용된 생산·유통 중심 거점단지
 - 스마트원예단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*을 병행 설치하는 지자체를 우선 선발하여 규모화 및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 달성(관련 규정 개정, '24년)
 - *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지열·공기열 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, 소각장 및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자원 재이용시설 등
 - ※ 향후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민간 투자모델(기업은 (-)폐열 공급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 부담하고 (+)농가 폐열 이용료와 탄소배출권으로 상쇄) 확산 유도

□ **(지원방향 전환)**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**신품종, 스마트팜** 등 유망 분야 투자로 전환하여 **과수산업의 지속가능성** 제고

○ 6대 과수 **신품종 특화단지 시범조성**으로 소비자 선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, 품목별 생산시기 집중도 완화

* (품종 현황) 소비자 기호보다는 저장성·재배편이 등 생산자 관점에서 강점이 있는 품종에 편중되어 있고, 개화기·수확시기 집중에 따라 가격불안정 지속

※ (예시) 개화기·수확시기에 재해 발생시 피해가 집중되고, 품종이 다양하지 않은 경우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량이 과다·과소하여 가격 등락폭이 큼

- **신품종 전환 후 시장교섭력 확보**를 도모하기 위해, 기반조성, 시설현대화 등 내역사업 패키지 지원 및 마케팅 지원 연계

○ 스마트팜 장비와 관수·관비 등의 과원시설의 연계도입 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**지원 사업의 통합*** 추진('25년~)

* (개편전) 시설현대화, 과수스마트팜 각각 신청 → (개편후) 1개 지원사업 일괄 신청

□ **(생산기반 유지)** 과수 재배면적 감소, 기 조성 과원의 노후화 등 지속적인 생산기반 축소를 개선하기 위해 **시설현대화 지원범위*** 확대

* (기준) 한-미 FTA 발효('12.3.15.) 이후 신규 조성한 과원은 정책사업 대상에서 제외 (단, 재해예방시설은 한-미 FTA 발효일 이후 조성 과원도 포함하여 지원 중('21~'26))

○ '12년 이후 조성한 과원*에 대한 고령목·노후시설 대체 등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**고품질 과수 생산 및 규모화 촉진**

* '12~'21년 신규 조성 과원 면적 추정(농업경영체 기준): 약 42천ha(총 재배면적의 27.5%)

- 시설현대화 지원대상을 한-미 FTA 발효일 이전 조성 과원에서 한-필 FTA 대책 발표일 이전 조성 과원으로 확대(관련 규정 개정, '24년)

※ (기대효과)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력이 유지된 과원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촉진하여, 과원 규모화,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생산여건 확대 등 기대

2 유통 효율화 및 수급안정

▶ 스마트 APC 확산(총 100개소) 및 수급조절 거점화

□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APC(농산물산지유통센터)* 구축(~'27년, 100개소)

* 농산물의 입고·저장·선별 등 APC 기능을 자동화하고 각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전·후방(농가, 거래, 물류)과 연계 및 활용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

- 주요 품목별 후보군 발굴(562개소 분석, '23년) 및 자동화·정보화 설비, 건축기준 등을 포함한 스마트 APC 표준모델 마련('23년)

- APC 규모화·광역화*를 위하여
주산지별 거점 스마트 APC 구축
계획을 수립(지자체·생산자단체, '23년)



* 거점 스마트 APC는 상품화, 물류 등 마케팅 거점 역할 수행, 그 외 APC는 집하·저장, 단순 선별, 전문품목 등 분담한 역할 수행

- 정부 정책사업을 통합·연합 APC에 집중 지원하여 APC 통합 촉진('24년~)

※ (통합 RPC 구축 사례) 통합 RPC에 한해 정책자금 지원 및 금리 우대 등을 통해 '04~'21년까지 총 56개 통합 RPC 구축, 기존 200개 RPC를 133개로 감축

□ APC 규모화·광역화 주체로 생산·유통 통합조직 육성

- 기존 지역단위 마케팅 통합을 넘어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기초 생산자단체와 전속출하체계를 구축하여 생산·유통을 통합 관리

- 안정적인 원물 확보 및 취급량 확대를 위해 APC와 통합조직에 전속출하하는 기초 생산자단체* 육성('22 : 1,697개소)

* 생산 농산물 전량을 APC와 통합조직에 출하하는 공동선별회·공동출하회 등

- 전속출하 기초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확대*('24년 118천톤)하여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

* ('24) 사과, 배, 온주감귤, 단감 → ('27) 품목 확대 및 품종 단위 세분화(샤인머스켓, 만감류 등)

2

농가 경영안정 지원

▶ 재해보험 제도개선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

- **(농작물재해보험)** 대상 품목 및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합리화
 - 대상 품목('23년 70개) 및 대상 지역* 단계적 확대
 - * (도입) 주산지 → (확장) 대상 지역 확대 → (전환) 본사업으로 전환 후 전국에서 추진
 -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방제가 어려운 **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상** 방안 마련
 - ※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 마련('23) → 보장 방안 도입계획 수립('24) → 보험 상품화('25~)
 -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세분화(시·군→읍·면)*하고, 동일 품목 내 품종·작형별 위험도 차이를 반영하여 상품 분리 운영**
 - * ('23) 사과·배 → ('24) + 벼, 단감, 뽕은감
 - ** (예시) 감귤에서 온주밀감(주로 노지재배)과 만감류(시설재배)의 요율 분리 산출('22~)
- **(수입보장보험)** 농가 수입·매출 정보에 기반한 경영안정 지원방안 마련
 - 대상 품목·지역 등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안과 농가의 수확량, 수입, 매출 등 관련 정보 확인·검증 시스템 마련('23)
 - 개선안에 따라 도상연습('24~'25)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

3

국산 원예농산물 수요기반 확충

▶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화 및 가공품 등 수요 다변화

- **(농식품바우처)**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및 국산과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**본 사업화** 추진 검토
 -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(~'24)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화 및 지원 확대 검토('25~)
 - ※ 대상 : ('20) 4개 시군구, 15천 가구 → ('23p) 18개 시군구, 63천 가구
- **(수요 다변화)** 원예농산물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**新식품화·기능성원료화·친환경포장 등 푸드테크 연구*** 추진
 - * 성공 사례는 스마트APC와 연계한 원료 공급체계 구축 지원 검토

▶ 對필리핀 농식품 수출 확대

- **(시장진입)** 對필리핀 수출기회 확대를 위한 신속한 위험분석 추진 및 검역요건 절차 이행 등 검역장벽 극복
 - 베트남·태국 등 아세안 국가의 국산 포도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 ('22년 포도 전체 수출액의 44%), 對필리핀 수출 검역협상 가속화
 - ※ ('07) 수출허용 요청 → ('21) 절차진행 촉구 → ('23) 필측 병해충 우려 제기에 검토의견 회신
 - 파프리카 수출시장 다변화(일본 99.5%)를 위해 검역요건 완화*('23)
 - * 주요내용 : 검역수량 완화(화물당 600개 → 2%), 운송수단 항공추가, 봉인방법 개선
- **(수출촉진)** 對필리핀 수출 검역협상 타결(딸기('21), 파프리카('23)) 계기 수출 확대를 위해 품목경쟁력 제고 및 물류 효율화 추진
 - (품목경쟁력 제고) 딸기·포도 등 對필리핀 수출 유망품목의 품질관리, 마케팅, R&D 등 수출역량 강화
 - 국산 농산물 수요가 높은 아세안 국가 대상 마켓테스트를 통해 현지 선호·입맛에 맞는 유망품목* 발굴 및 對필리핀 수출 확산
 - * (딸기) 비타베리, 하이베리, 알타킹 등 / (포도) 홍주씨들리스, 레드클라넷 등
 - 딸기·포도 등 신선농산물의 생산·저장·유통 과정 신선도 유지기술을 고도화하고 고급·기능성 포장재를 개발*·보급하여 품질경쟁력 확보
 - * 신선농산물 수출 전과정의 품질개선, 상품성 향상 예산 120억 원 투자('23~'25, 농진청)
 - (물류 효율화) 신선도 유지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아세안 국가 공동물류센터*·저온유통체계**(콜드체인) 구축 등 수출 물류 인프라 강화
 - * ('23) 88개소(필리핀 2개소) → ('24) 91개소
 - ** ('22) 중국, 베트남, 태국 → ('23) 싱가포르, 유럽 → ('24) 1개국 신규 추가
 - 특히 딸기 등 항공수송 품목은 상용화주* 및 저온창고 활용하여 선도유지
 - * 항공화물을 직접 보안검색 및 포장하고 보관·운송업무를 수행 현재 2곳(서울항공, CALT) 지정운영

V. 투·융자 계획

▶ 10년간('24~'33) 원예산분야 총 1,469억원 추가 지원(순증)

- (과수생산유통지원) '24년 예산 587억원, 향후 10년간 983억원 추가 지원
 - 과실전문생산단지 정비 가속화
 - 신품종 특화단지 시범조성(기반조성·시설현대화^{내역} 패키지 지원)
- (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) '24년 195억원, 10년간 총 103억원 추가 지원
 - 스마트원예단지 內 신재생에너지 시설 병행 설치 지원
- (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) '24년 372억원, 10년간 총 319억원 추가 지원
 - 주요 품목 주산지 거점 스마트 APC 구축
- (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) '24년 59억원, 10년간 총 64억원 추가 지원
 - 인프라 갖춘 대규모 스마트원예단지 조성

< 10년간('24~'33) 투·융자 계획 >

(단위 : 억원)

사업명	'24년	10년간('24~'33)		
		기존	조정	증감
▶ 과수생산유통지원				
- ^{내역} 기반조성, 시설현대화, 과수분야 스마트팜지원	587	5,374	6,357	983
▶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	195	2,056	2,159	103
▶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				
- ^{내역}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	372	3,576	3,895	319
▶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	59	593	657	64
총 계	1,213	11,599	13,068	1,469

※ 세부사업별 내역, 추진규모 등은 시장상황,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